

한국불교 생전예수재의 특성

- 회편과 차서와 상례화를 중심으로 -

이성운*

• 목 차 •

- I. 서언
- II. 儀文 會編의 特性
 - 1. 傳承의 積層性
 - 2. 至誠의 中層性
- III. 次序의 再構造化
 - 1. 神衆의 擁護
 - 2. 觀音의 嚴淨
 - 3. 靈山의 法席
- IV. 예수재의 상례화
 - 1. 朔望의 기원
 - 2. 齋日의 獻供
 - 3. 수록재와 同行
 - 4. 設行의 상황
- V. 結어

* 동국대 평생교육원 겸임교수.

한글요약

이 글은 사후추천재인 칠칠재를 생전에 본인이 직접 시왕에게 공양 올리고 전생의 빛을 갚으며 경전을 보는 한국불교 생전예수재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예수재의문 회편의 특성과 차서의 재구조화, 예수재의 상례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국불교계에는 10세기경부터 시왕사상에 입각한 사후칠칠재나 명부시왕에 권공하여 명복을 비는 신앙이 발달하였다. 현재 한국불교 예수재의문의 고형은 『예수십왕생칠재의찬요』로 생물을 알 수 없는 대우 스님에 의해 16세기 중반에 집술(集述)되었다. 자료를 모으고 저술하여 ‘찬요(纂要)’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수록재 ‘찬요’의 편집 전통을 일정 따르고 있다. 같은 방식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같은 문장의 요소를 택하거나 편집에 있어서도 유사한 방식을 전승하고 있다. 또 가장 전통적인 수록재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촬요(撮要)’의 편제도 일정 부분 도입함으로써 한국불교 의례의문의 간행정신을 잇고 있음이 특이하다. 아울러 예수재에는 한국적 정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듭 거듭하는 공양 올리는 중층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재는 집술 이후 역사를 거듭하면서 의례의 차서가 점차 재구조화되고 있다. 신중의 옹호를 발원하는 ‘창불(唱佛)’의식을 어느 위치에서 행하느냐 하는 데 대한 견해가 다양하지만 창불은 적어도 전(全)의식의 서두에 행해지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또 예수재 본 의식에서, 관음보살을 청하여 결수(乞水)하고 채수(灑水)하는 의식을 추가함으로써 엄정팔방(嚴淨八方)을 보완하거나 또 그곳에서 설법의식을 행하는 등 의례를 재구조화하고 있다. 영산·수록재에서는 법화경이 염송되거나 설해지지만 예수재에서는 저승빛과 함께 바치는 간경(看經)은 금강경이 염송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금강경찬으로 대체되었다.

시왕재나 소변재(燒幡齋)로 불리다가 16세기 중반 예수재라고 명칭되며 발달하였다고 보이는 생전예수재는, 초하루 보름의 불공이나 십재일의 헌공과 같이 상례화의 길을 걸었다. 또 봄가을의 수록재 등에 예수재가 합설되면서 고유 의미가 퇴색되었다. 특히 시왕권공의 십재일이 그 주

(主)불보살에게 올리는 공양으로 인식되어 명부시왕과 관련된 재일은 지장재일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일상예수(日常預修)라는 의미로 생전예수재가 축소되었지만 거기서 행해지는 독특한 종합의례로서의 성격까지는 감소되지 않아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영산재 수록재 등과 함께 종합의례들이 정비되고 신앙되면서 그 본래적 기능을 되찾고 있다. 또 생전예수재는 윤달에 주로 행해지고 있었지만, 현재 도하 사찰에서 우란분재를 칠칠재로 봉행하는 등 생전예수의 본래적 의미에 따라 윤년에 구애되지 않고 수시로 행해지고 있다.

주제어

생전예수재, 사후추천재, 시왕사상, 예수십왕생칠재의찬요, 수록재, 십재일.

K C I

I. 서언

사후에 선업을 닦아주는 칠칠재를 살아생전에 미리 닦는 칠칠재를 생전예수재라고 한다. 생전예수재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생전예수재 관련 판본에 관한 연구와 생전예수재 자체에 대한 사상과 신앙연구로 대별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불교 생전예수재의 회편과 차서 등에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신앙과 사상, 의례구조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는 데 그치겠다. 생전의 예수신앙과 사후의 천도신앙은 한태식(보광)에 의해 이미 자세히 고찰되어,¹⁾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은 필요치 않으며, 또 한국불교 생전예수재 의문 출현 이전의, 지장예문과 지장·시왕 헌공례가 문상련(정각)에 의해 검토되어²⁾ 생전예수재의 발달과 의문의 편찬과정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노명렬(혜일)은 의식절차와 음악을 조선시대 생전예수재와 현행의 예수재를 비교함으로써³⁾ 현행 예수재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생전예수재는 생전에 닦는 칠칠재로 사후의 칠칠재의 대척점에 자리한다. 사후에 행해지는 칠칠재는 후손이나 산 자가 재주가 되는 대타적인 의례이지만 생전의 칠칠재는 자신이 재주가 되는 자행의례라고 할 수 있다. 사후에 칠칠재를 닦는 연유는 다양한 사상에 의거해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지은 업보에 따라 윤회를 반복한다. 둘째 사람은 태어남의 생유와 일생 동안의 본유와 죽음의 사유와 그 이후의 중유 과

-
- 1) 한태식(보광), 「생전예수재 신앙 연구」, 『정토학연구』 제22집 (한국정토학회, 2014)
 - 2) 문상련(정각), 「지장신앙의 전개와 신앙의례」, 『정토학연구』 제15집 (한국정토학회, 2011)
 - 3) 노명렬(혜일), 「현행 생전예수재와 조선시대 생전예수재 비교 고찰」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정을 겪는데 이 중유 동안에 산 자가 공덕을 지어줌으로써 죽은 이가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셋째 죽은 이가 명계에 머물며 시왕의 심판을 받게 되므로 명계 시왕에게 공양을 올려 죽은 이를 위해 선업을 닦아 준다.

그러므로 “생전에 악한 일을 하고 죽은 중생이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 없거나 살았을 적에 착한 일을 지은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본래 지은 업에 따라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⁴⁾라고 하는 지장경의 지장보살신앙과 야마천신앙이 중국에서 도교의 시왕명부사상과 습합되어⁵⁾ 성립된 사후의 칠칠재는 원초적으로 불교의 윤회와 지옥사상에 도교의 시왕 심판사상이 결합된, 선망부모를 위해 살아 있는 효자가 올리는 추선불사(追善佛事)⁶⁾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후에 선업을 짓는 칠칠재를 왜 생전에 해야 하는가. 생전예수재에서는 12생에 따라 지은 빛이 있고 이를 갚기 위해 명부전[돈]을 바친다. 이는 자칫하면 중세 유럽의 가톨릭교회에서의 면죄부 판매와 비견되지만 그렇지 않다.⁷⁾ 그 같은 견해는 표면적인 행위의 구상성에 국한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전예수재의 사상적 근원이 되는 『불설예수시왕생칠경』의 범문을 오해한 데서 기인한다. 이 경전에는 청신사 청신녀가 매달 초하루 보름 두 차례에 불법승 삼보 전에 공양을 올리고 시왕에 명부전(錢)과 경전을 바치고 기도하는 생전의 예수칠재를 닦으면, 명부의 선업동자가 그 이름을 저승명부에 기록해 둔다고 하고 있다.⁸⁾ 이 범설의 요지는

4) 『地藏菩薩本願經』(大正藏13, 779a)

5) 한태식, 앞의 논문, p.21. 열 열라시왕에 대한 것은 불교경전에도 등장하지만 중국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시왕이 확립된다.: 문상련, 위 논문, p153. 주45.

6) 미치하타 료우슈우, 최재경 옮김, 『불교와 유교』 (한국불교출판부, 1991), p.100.

7) 한태식(보광), 「생전예수재 신앙 연구」, pp.12-13.

8) 藏川 述, 『佛說預修十王生七經』 『卍新纂續藏經』 第一冊 No.21, p.408b.

보시하고 공양하며 십악오역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다. 설령 믿음이 없거나 약해 사후 명부세계의 시왕을 믿지 않을지라도 선행을 닦는 것은 생전에 의당 해야 할 일이므로 굳이 마다 할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전에서 설하는 생전에 예수하는 두 가지 법은 전생에 빚진 돈을 갚는 일이고 경전을 바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빚진 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불교에서는 네 가지 큰 은혜를 말하듯이 일체의 은혜 속에서 모든 중생은 우주와 중생에게 빚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알든 모르든 수많은 이들의 노고로 살아가므로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경전을 바친다고 했는데 이는 무엇인가. 경전을 바친다는 것은 경전을 인다는[頂戴] 것으로 경전을 믿고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생전예수재에서 바치는 경전은 금강경이다. 이는 반야 공관을 닦는 수행과 금강경 경전신앙과 관련이 있다. 생전예수재는 몸이 죽고 나서는 선행을 닦을 수 없으므로 살아서 선행을 닦자고 권장하는 실천성이 강한 종교의례라고 할 수 있다. 예수재의 원초 경전에 서술되어 있고, 생전예수재에서 행해지는 여러 행위는,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선업을 닦기를 가르치고 또 다짐하게 하는 권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전예수재는 사후에 남은 이가 행하는 추천재와 달리 초하루 보름 재일에 일상적으로 행하는 상용의례로 그 교육적 효과도 지대하다⁹⁾고 하겠다. 사후의 의존적 추천재인 칠칠재에 비해 생전예수재에는, 나를 위해 다른 이가 공덕을 지어주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데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역동성이 담겨 있다. 또 현재 여타 동아시아불교에서는 사라지고 한국불교에만 선행되는 독창성과 역사적인 전통성을 안고 있는 특수한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성을 안고 있는 한국불교 생전예수재의 특성을 살펴보

9) 이범수, 「불교의 예수재와 죽음 교육」, 『정토학연구』 제11집 (한국정토학회, 2011), pp.346-347에서 예수재를 ‘최고의 웰다잉교육’이라고 하고 있다.

고자 하는 이 글에서는 생전예수재의 원초경전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이래 한국불교에서 간행된 주요 생전예수재 의문을 고찰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현재 생전예수재를 파악할 수 있는 국내의 원초경전은 『불설염라왕수기사증역수생칠왕생정토경(佛說閻羅王授記四衆逆修生七往生淨土經)』¹⁰⁾이고, 의문은 『예수시왕생칠재찬요』¹¹⁾ 이래 현대까지 간행되고, 설행되고 있는 의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¹²⁾ 또 생전예수재라고 명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시왕청이 소재하고 있는 『제반문』과 『청문』¹³⁾ 등도 이 글과 관련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원초경전과 의문(儀文)으로 볼 때 생전에 자신이 재주(齋主)가 되어 스스로 닦는 생전예수칠재와 사후에 칠칠재와는 어떤 차이와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생전예수재 의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고행의 생전예수재 의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광흥사본과¹⁴⁾ 후대 간행 의문의¹⁵⁾ 회편에서 보이는 특성, 또 차서가 재구조화 되는지, 그리고 생전예수재가 한국불교에서 어떻게 상례화 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
- 10)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6), p.391에는 10종이 소개돼 있다.
- 11) 남희숙의 「朝鮮後期 佛書刊行 研究」(서울대학교대학원, 2004), p.182에는 1566년 평안도 成川 靈泉개관 안국사본, 1576년 광흥사본, 1632년 용복사본 등 8종이 보고돼 있고, 문상련의 「지장신앙의 전개와 신앙의례」, p.172. 주113에는 15종이 조사되었다고 소개되어 있다.
- 12) 안진호, 『釋門儀範』(1935) 所收 예수재를 비롯하여, 『불교의식』(문화재연구소, 1989)에 조사된 예수재와 현행 예수재의문 등이 있다.
- 13) 문상련은 「지장신앙의 전개와 신앙의례」, p.171. 주112에 청문과 제반문의 판본을 소개하고 있다. 본고에서 주로 참고한 제반문은 『한국불교의 레자료총서』 제1집, 소수 1574년 안변 석왕사의 『제반문』이다.
- 14)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第2輯에는 광흥사본(1576년) 용복사본(1632년)이 실려 있다.
- 15) 『釋門儀範』(1935)과 『預修儀文』(全北佛教聯合會, 1988)을 주 대상으로 삼는다.

II. 儀文 會編의 特性

특정 경전을 신앙하고자 하려면 그 경전의 교설에 근거해 의례를 편찬해야 한다. 가령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에 의거해 불공(不空, 705-774)이 염송의례인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悲心陀羅尼』를 편찬하는 것이나 『佛說救面然餓鬼陀羅尼神咒經』 등의 시식(施食)경전에 의거해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1270)나 『仔夔文』(1150)·『天地冥陽水陸齋儀』 등이 시식의례가 편찬되는 것이 그것이다. 장천이 예수재의문을 편찬하였다고 하지만 한국불교 예수재의문인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의 원초의례라고 보이는 자료는 찾아지지 않는다. 단지 『釋門正統』에조차 시왕의 명호를 소개하면서 그 용례로 수록의문의 서문을 들고 있다.¹⁶⁾ 또 중국에서 생전예수재가 만당 이후 송나라 때까지 크게 유행하였다고 하지만 현대에는 설행되고 있다는 보고도 보이지 않는다. 중국불교협회에서 간행한 「中國佛教儀軌制度」에는 15종의 중국불교 의례가 소개되고 있으나 ‘생전예수재’에 관련된 의례는 보이지 않으며,¹⁷⁾ 『中國の佛教儀禮』에도 조모과송과 수록법회 등이 조사돼 있지만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다.¹⁸⁾ 일본 불교에는 수록재조차 순수한 ‘시아귀회’로 설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¹⁹⁾ 예수재 관련의례는 설행된다고 할 근거는 잘 찾아지지 않는다.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의 원초의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
- 16) 宗鑑 集, 『釋門正統』 第四 (X75n1513, 304a), “有十王經者, 乃成都府大聖慈寺沙門藏川所撰. 又水陸儀文敘曰: 圖形於果老仙人(唐張果老畫幀), 起教於道明和尚, 雖冥司有十王之號.”
- 17) 中國佛教協會編, 「中國佛教儀軌制度」, 『中國佛教』2 (上海: 知識出版社, 1982/1989)
- 18) 鎌田茂雄 著, 『中國の佛教儀禮』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86)
- 19) 이소오카 테츠야, 「水陸齋의 사회학적 의미」, 『두타산 삼화사 국행수륙대제의 전통성과 그 구조적 의미』 (삼화사 국행수륙대제보존회·한국불교민속학회, 2012), p.91.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의 원초의례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釋門正統』에 시왕신앙에 관해 수록의문의 서문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한국불교 생전예수재 의문의 분석에 의미 있는 단서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현재 보고된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의 최고본은 16세기 중엽 안국사에서 간행된 본이고, 10여년의 차이로 간행된 본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생전예수재’라는 명칭의 예수(預修) 신행이 유행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전예수신앙은 이전의 시왕신앙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고려사절요』 권2에는 1003년 천추 태후 황보 씨가 궁성 서북 모퉁이에 시왕사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사절요』 권6에는 1102년 흥복사에 시왕당이 완성되었다고 하며, 『고려사절요』 권10에는 1146년에는 병이 심하여 시왕사와 종묘의 사직에서 빌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10세기경부터 국내에 사후 명부의 지옥을 면하기 위해 시왕에게 공양을 올리는 예수재가 행해지기²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원찰로 잘 알려진 안변 석왕사에 명부시왕이 모셔져 있었고,²¹⁾ 삼성재가 설행되기도 하였다.²²⁾ 시왕재를 위한 위전 50결이 하사되기도 하였다.²³⁾ 시왕을 봉안하였으므로 때가 되면 권공(勸供)하거나 시왕재를 올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종교행위였을 것이다.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제1집에 수록된 안변 석왕사 『권공제반문』(1574)²⁴⁾은 바로 시왕에 권공하는 의문이다. 그런데 오래도록 설행된 불교식 국가의례였던 선왕선후의 기신재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1516년 이래²⁵⁾ 시왕재는

20) 정각, 앞의 논문, p.186.

21) 『陽村集』 33卷, 釋王寺堂主毘盧遮那左右補處文殊普賢腹藏發願文」條

22) 『太祖實錄』 14卷 (7年(1398) 8月 19日(壬戌) 1번째 기사) 이 삼성재에 대해서는 비로자나 문수 보현의 삼성인지 지장삼성인지 좀 더 깊이 있는 탐색이 필요하다.

23) 『世宗實錄』 41卷 (10年(1428) 9月 20日(己巳) 2번째 기사)

24)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第1輯 (三聖庵, 1993), pp.653-659a.

다른 명칭으로 설행되었다고 보인다. 1518년 강원도 원주 진사 김위는 궁중에서 불사를 열고 있다고 하며 그 부당함을 다음과 같이 상소하고 있다.

“근일 이래로 두세 승니(僧尼)가 머리를 땅아 늘이고 속인(俗人) 복장으로 몰래 내지(內旨)라 일컬으며 산중에 있는 절에 출입하며, 쌀과 재물을 많이 가져다가 부처와 승려들에게 재를 올립니다. 당개(幢蓋)를 만들어 산골에 이리저리 늘어놓고, 또 시왕(十王)의 화상을 설치하여 각각 전번(牋幡)을 두며, 한 곳에 종이 1백 여 속(束)을 쌓아두었다가 법회(法會)를 설치(設施)하는 저녁에 다 태워 버리고는 ‘소번재(燒幡齋)’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지’란 궁중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하께서 모르시는데 궁중이 행한다면 이는 궁중이 전하를 속이는 것이고 궁중에서 행하는데 전하께서 금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전하께서 궁중을 가르치신 것입니다.”²⁶⁾

시왕재 위전이 하사될 정도로 시왕재가 존재하였지만 기신재가 폐지된 이후에는, 위 장소에서 볼 수 있듯이 ‘소번재’라는 명칭으로 시왕재와 같은 예수재가 봉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40여 년 뒤인 1566년에 생물이 잘 알려지지 않은 송당 대우 스님에 의해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가 집술(集述)되고 이후 수처에서 수차 간행된다. 또 유사한 시대에 활동한 나암보우(懶庵普雨, 1509-1565)에 의해 「예수시왕소」²⁷⁾가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은 약간의 자료로 볼 때 아마도 16세기 중엽부터는 ‘생전예수재’라는 명칭으로 시왕에 대한 공양의 식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하였다고 보인다. ‘시왕재’라는 이름의 시왕공양의례가 16세기 중엽부터 생전예수재라고 재차 명칭된 것은 시왕

25) 『中宗實錄』 25권 11(1516)년 6월 2일조. 하지만 懶庵雜著, 『韓國佛教全書』 第7冊 p.583에 「인종대왕기신재소」, 「세자소상재」, 「축성재소」 등으로 볼 때 불교식 기신재는 설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26) 『中宗實錄』 34권, 13년(1518) 7월 17일(갑인) 3번째 기사.

27) 「懶庵雜著」, 『韓國佛教全書』 第7冊, pp.587c-588a.

사상에 대한 저간의 사회적 인식 변화 또는 반발이라고 할 수 있을 같다. 그렇다면 1576년 광흥사본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와 1632년의 용복사본, 그리고 『석문의범』(1935)에 소수(所收) 본과 1970년 이래 국내에서 실행되는 의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회편과 차서 등의 특성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1. 傳承의 積層性

생전예수재의문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이하 예수재의문이라고 약칭한다)의 편찬과 회편은 수록재의문의 그것과 유사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석문정통』에서도 수록의문의 서를 인용하여 시왕신앙을 언급하고 있듯이, 31편으로 편재된 예수재의문을 ‘찬요(纂要)’라고 하고 있다. 수록재의문을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中禮文』)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結手文』)라고 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찬요’ 또는 ‘촬요’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데, 예수재의문은 ‘찬요’의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찬요’라고 하나 ‘촬요’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서문 작성 예와 구문의 축조를 보면 꼭 그렇지 않다. 예수재의문은 수록재 찬요 『중례문』의 그것과 유사하다. 가령 서문의 작성 예를 보면 수록재 ‘촬요’에는 수록재의 의미와 기능이 먼저 설해지고 있지만 ‘찬요’에는 수록재의 실행 인연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수록재 찬요에서 아난존자에 의해 가르침이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듯이 예수재의문의 ‘통서인유편’에는 병사왕(瓶沙王: 빈비사라왕)이 즉위하여 생전예수재를 닦았다고 하는 인연의 단초를 밝히고 있다. 수록재가 아난존자라는 출가자에 의해 그 가르침이 일어났다면, 예수재는 ‘병사왕’이라는 재가자에 의해 그 가르침이 처음으로 베풀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재의 역할에 주요한 의미를 제시한다. 수록재가 대타의 수

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예수재는 자행의 능동적 의례라는 성격을 보이며, 연기와 설행의 주체에 있어서 상보적이다. 구제의 출가자와 공양의 재가자라는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때 한국불교 예수재는 신행의례라는 특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수록재의 두 의문인 『중례문』의 찬요와 『결수문』의 찰요는 의례의 대소와도 관련이 있다.²⁸⁾ 예수재의문은 수록재 찰요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편찬 정신은 찬요를 따르고 있다. 예수재의문은 최상위의 존재들인 성위(聖位)에게 공덕을 증명해 달라고 소청한 다음 성위의 존재들에게 목욕의식을 시설하고 있는데, 이는 ‘찰요’의 『결수문』이 상위와 중위의 성현들에게 목욕의식을 행하지 않지만 ‘찬요’의 『중례문』이 상위와 중위의 성현들에게 목욕의식을 행하고 있는 점도 같다. ‘찬요’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예수재의문에는 증명단인 최상위의 성위를 위한 목욕의식을 실행하고 있다. ‘찬요’라는 동일한 명칭을 부여하였으므로 동일한 형태의 차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이와 유사하면서 다른 형식도 발견된다. 순서에 대해 종종 언급되는 것으로 개단진언과 건단진언의 순서인데, 이것을 조금 살펴보자. 예수재의문은 수록재 『중례문』의 문장 요소와 편제를 주로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개단진언과 건단진언의 순서에 있어서는 『결수문』의 차서를 따르고 있다. 『지반문』과 『중례문』은 건단과 개단진언 순서로 편제돼 있다.²⁹⁾ 이 경우는 명칭의 수용보다 실행 빈도의 전통성을 잘 보여주는 『결수문』³⁰⁾의 차서를 따르는 데서 오지

28) 필자는 수록재설행의문인 「지반문」과 더불어 「중례문」, 「결수문」을 대·중·소의 의문으로 당일 재회의 설판 규모에 따라 의문이 채택돼 실행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성운, 「영산재와 수록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韓國佛敎學』 第73輯 (한국불교학회, 2015), pp.433-436.

29) 「지반문」, 『韓國佛敎儀禮資料叢書』 第1輯, p.583; 「중례문」, 『韓國佛敎儀禮資料叢書』 第2輯, p.218.

30) 이성운, 「현행 한국수록재에 대한 검토」, 『韓國禪學』 第36호 (韓國禪學

않았을까 한다.

이렇듯이 예수재의문은 ‘찬요’라는 명칭을 지니는 순간 무주고혼의 시식을 위해 널리 행해진 동 시대의 수록의문의 그것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집술(集述)’이라고 하였듯이 유사한 의례의 편찬전통을 전승하고 있는 점은 의례 의문의 간행정신처럼 되어 후대에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2. 至誠의 中層性

종교의례는 자신이 믿는 성현에게 지극한 정성으로 귀의하고 가피를 청하는 의식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정성은 거듭 거듭 아뢰고 공양 올리는 행위로 이어진다. 예수재가 초하루 보름에 모셔 놓은 부처님과 시왕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인 것처럼, 야외에 단을 차리고 수많은 신도들이 함께 닦는 생전예수재 역시 그 같은 모습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수록재에도 공양을 올릴 대상을 삼위 삼단으로 나눠 소청을 한다. 상위(上位)의 여래 보살 성문, 중위(中位)의 제 신중, 하위(下位)의 각 단위의 고힌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예수재에서는 상위의 성위(聖位)들을 모시는 목적은 중위의 시왕과 그 권속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에게는 간단하게 차 한 잔을 올리는 것으로 멈추고 있다.³¹⁾ 예수재 의문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성위의 존재에게 공덕을 증명을 부탁하고자 의례 도량에 청하여 목욕을 마치고 나면 자리에 모시고 난 다음 다탕(茶湯)을 올리고, 널리 인사를

會, 2013), p.268.

31) 나한청과 칠성청이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위 불격의 여래를 증명으로 헌다하고 각 칠성을 청해 공양을 올린다. 『석문의범』 하권, pp.21-28. 이 같은 회편은 조계종의 『통일법요집』 편찬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통일법요집』 (조계종, 2003), pp.222-229.

드린다. 그리고 다음 의식인 명부소청(冥府召請)으로 넘어간다.³²⁾ 그런데 중위의 명부시왕과 권속을 청하고 기성가지 편으로 공양을 올리고 있다. 이는 광흥사본(1576)에서는 중위의 명부를 소청해서 목욕을 하고 성현께 인사를 드리고 난 다음 고사판관을 소청하지만 용복사본(1632)에서는 성위와 명부시왕과 권속에게 기성가지의 공양을 함께 행하고 있다.³³⁾ 이 의식은 견기이작(見機而作)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석문의범』(1935)에 이르면 명부시왕과 권속을 청해 목욕하고 성현께 인사드리고 나서 기성가지 편으로 상위와 중위의 명부시왕과 권속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고사판관을 청해 공양하고, 전 의식을 회향하는 데서 마치지 않고 있다. 고사판관을 청하고 난 다음 제위진백편에서 차를 올린 다음 상단의 기성가지를 행하고, 이어 중단의 기성가지를 행하고, 하단의 기성가지를 행하고 있다.³⁴⁾ 이는 광흥사본의 사기(私記)처럼 ‘기성가지’를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용복사본에서는 성위와 명부시왕과 권속을 청하고 난 다음 함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명부권속을 청하고 기성가지 공양을 올리고 고사판관을 모시고 나서 공양하고 의례가 회향되고 있는데, 『석문의범』 이후의 본에서는 두 의문의 사기(私記)와 차서(次序)가 합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석문의범』의 회편은 34편으로 증편되었다. 이후 필사되거나 편집된 예수재 의문은 석문의범의 그것에 의지하고 있다고 보인다.³⁵⁾

예수재에서 이같이 공양의 중첩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한 정성을

32) 大愚 集述,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第2輯, p.105a. 현재와게송 후 “奉茶湯已普禮”라는 협주가 있다. 이는 증명공덕으로 청하고 있는 현재의 칠성청의식도 마찬가지이다.

33) 大愚 集述,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第2輯, pp.114a-115a.

34) 『釋門儀範』 下卷 (前叻商會, 1935), pp.196-209.

35) 姜在默 謹書, 『預修儀文』 (全北佛教聯合會, 1988)

다하게 되면서부터 발생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중례문』을 바탕으로 설행되는 삼화사 수록재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확인된다.³⁶⁾ 『중례문』의 차서는 상위에서 하위까지 소청을 마치고 상위와 중위에 진공하고, 하위에 시곡(施斛)을 하고 있다.³⁷⁾ 삼화사 수록재에서 볼 수 있듯이 상위와 중위를 청하고 곧바로 공양을 올리는 것은 정성을 다해 공양을 올리는 장면은 한국불교 생전예수재의 회편에서 보이는 특성이라고 여겨진다.

III. 次序의 再構造化

한국불교 예수재의식의 차서가 재구조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를 먼저 해명하자.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는 ‘통서인유편제일’에서 시작해 ‘보신회향편 제삼십일’로 마쳐지는 차서이다. 의례의 보편적 특성상 수록재의 그것과 기본적인 의식 차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시련과 대령을 하고 창불(唱佛)을 하여 불사(佛事)의 옹호를 발원하고 관음을 청해 걸수(乞水)하여 물을 뿌려[灑水] 도량을 엄정(嚴淨)하고, 엄정한 그곳에서 대중을 교화하기 위해 경전을 염송하고 또 법문을 한다. 이 같은 의식은 수록재나 영산재의 그것과 예수재 또한 유사하다. 다만 그것의 형태는 적지 않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16세기 간행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주요 생전예수재의문³⁸⁾의 구조변이를 차서의 재구조화라고 명명하고자

36) 彌燈, 『국행수록대재』 (조계종출판사, 2010), pp.143-146; pp.167-170.

37)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第2輯, pp.221a-242a.

38)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1566),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1632), 『釋門儀範』 (1935), 『預修儀文』 (1988) 등의 판본에서 나타나는 구조변이를 기본으로 한다.

한다.

1. 神衆의 擁護

불사 옹호를 청하는 신중작법은, 신중을 간략히 찬탄하며 삼청하는 것을 신중작법이라고 하고, 39위나 104위를 청하여 옹호불사를 청하는 것을 창불(唱佛)이라고 구분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는 대소(大小)의 작법이라고 보이므로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이 신중작법을 언제 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노명렬(혜일명조)은 “현행 생전예수재에서의 신중작법 의식은 의식을 집전하는 범패승에 따라 그 진행 절차에 많은 차이가 있다. 즉, 괘불이운이나 영산작법 전에 행하기도 하고 생전예수재 본 의식에 들어가기 전에 행하기도 한다. 또한 괘불이운이나 영산작법이 생략될 경우 행하기도 하고 괘불이운의 옹호계 부분에서 행하기도 한다.”고 하며, 관육의식 이후에 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³⁹⁾ 그런데 신중 명호를 불러[唱] 옹호불사(擁護佛事)를 청하는 창불, 또는 신중을 청하여 결계와 호지 등을 청하는 의식은, 한국불교 수록재에서 가장 큰 규모형태라고 할 수 있는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志磐文』)⁴⁰⁾에 그 원형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석문의범』의 신중청에는 거불 이후 여타 다른 청문과 달리 유치 이전에 예적대원만다라니·십대명왕본존진언·소청삼계제천진언와 보소청진언이 시설되어 있다.⁴¹⁾ 신중청 유치 앞에 왜 이 진언들이 시설되어 있을까. 이것은 『지반문』 차서의 의미를 수용하지 않는 한 잘 수용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지반문』에서 이

39) 노명렬, 「현행 생전예수재와 조선시대 생전예수재 비교고찰」, p.143.

40)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第1輯, pp.577-579a.

41) 『釋門儀範』下卷(1935), p.29와 달리 『통일법요집』(조계종, 2003), p.206에는 보이지 않는다.

진언은 불사를 호지하고 결계를 청하기 위해 염송되는 진언이다. 다시 말해 수록재 본 의식에서 엄정팔방과 호지결계 의식에 활용되는 진언인 것이다. 신중을 청하는 목적이 불사도량을 옹호하고 불사도량을 결계를 원하는 것이므로, 신중을 ‘창(唱)명’과 결계와 옹호 ‘불(佛)’사에서 ‘창불(唱佛)’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반문』과 달리 『중례문』이나 『결수문』에서는 신중을 청해 호지결계를 청하는 의식이 ‘결계진언’ 외에 별도로 없으므로 신중을 사전에 청해 옹호불사를 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여 신중창불은 불사의 사전에 행해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괘불이운과 옹호계를 하고 별도의 창불을 하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 있다. 대형 수록재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반문』은 중·소형의 『중례문』이나 『결수문』과 달리 정삼엄진언 이후 안위제신진언을 존치하고 있는데, 이는 옹호도량의 의미를 가람신 또는 안택신을 청하는 진언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이에 비해 현행 예수재의문에는 신중창불을 통한 옹호불사 의식이 별도로 존치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서 예수재 본 의식 이전에 신중작법을 하여 불사를 옹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석문의범』이 중단권공과 달리 신중청이 편재돼 있고 유치 이전에 세 진언이 선행하는 것은, 신중의 역할이 옹호불사와 결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편제(編制)라고 할 수 있겠다.

2. 觀音의 嚴淨

예수재를 실행하는 공간은 불사도량이다. 불사도량을 깨끗이 하는 것은 불사를 원만히 성취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예수재에서의 도량은

42) 『水陸儀軌會本』(上海佛學書局, p.31)의 안위제신진언의 협주에는 “주 범사는 가람의 제신(18신)이 모두 다 위로하고 기뻐하며 영원히 수호한다고 상상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족성가를 위한 수록재는 안택6신이 그렇게 한다고 상상한다고 하고 있다.

깨끗이 하는 의식도 수록재의문의 그것과 같이 엄정팔방편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성스러운 단을 열고 불사를 펼치고자 하면 가지(加持)를 한 법수(法水)를 도량에 뿌려 청정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쇠정호마(灑淨護魔)다라니를 염송한다. 법당에 들어가서 동북쪽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돌며 사방으로 법수를 뿌린다. 법당 밖에서도 동일하게 행해진다. 여기에 천수대비주를 활용한 사방찬 의식이 추가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의식은 간결하지만 완전한 쇠정호마의식이다.

그런데 현행 예수재의식에서는 관음보살을 청해 신묘장구다라니로 정수(淨水)에 가지하여 법당과 뜰과 마당의 사방에 법수를 뿌려 깨끗하게 정화하는 영산작법의 엄정의식이 추가되고 있다.⁴³⁾ 예수재의 이 편목에는 쇠정호마다라니를 염송하라고 하고 진언을 시설하고 있다. 진언의 제목이 별도로 인자되지 않고 본문 형태로 제목과 진언이 편제되어 있다. 『석문의범』(1935)은 쇠정호마다라니 이후에 관음찬을 위시한 영산의 관음의 엄정의식을 진행하고 설법의식까지 편입하고 나서 원 의식으로 돌아가서 개단진언과 건단진언으로 넘어가고 있다. 호남지역에서 필사된 『預修儀文』(1988)에는 다시 쇠정호마다라니 제목과 그 진언을 다시 인자하고 ‘복청게 참회게 설법가야(說法可也)’라고 하여 엄정의식과 설법의식이 다시 분화돼 있다.⁴⁴⁾ 필사 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의례 상황에 따라 그와 같이 의식을 행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엄정팔방 의식에 관음의 엄정의식을 추가로 편제한 것은 분명하다. 주변을 깨끗이 엄정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삼매야계단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개단진언과 건단진언이 이어지게 된다.

예수재에서 관음의 엄정의식을 본 의식에 편입한 것은 영산작법을 보완하기 위한 의식으로 다음의 설법의식을 편입한 것과 그 궤를 같

43) 『釋門儀範』 上卷, pp.157-158.

44) 姜在默 謹書, 『預修儀文』 (全北佛教聯合會, 1988), pp.15-16.

이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금이라도 정성을 다하려는 한국인의 종교적인 심성의 발현이라고 보인다.

3. 靈山의 法席

현재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종합의례라고 하면 누구나 영산재를 떠올린다. 영산재는 음악 무용 미술 등의 제 요소가 결합된 종합 불교 문화 예술이라고 불릴 만큼 다채롭게 진행된다. 현재의 영산재에 대한 시원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그 기원을 탐색하면 영산재는 영산의 법석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법화경을 염송하거나 설법하는 법석이지만 설행 양태는 천지명양수륙대도량의 무차법회이다.⁴⁵⁾ 수륙재회를 여는 데 왜 영산법석을 베푸는가 하는 문제는 간명하다. 영산법석에서 베풀어지는 법화경 강설의 공덕이 수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고혼의 왕생극락을 위한 칠칠재나 무주고혼의 왕생극락을 위한 수륙재 등을 개설할 할 때 법화경을 강설하는 영산법석을 열게 되는 것이다. 해서 추천의식에는 영산 법석과 시왕각배 의식이 함께 개설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재 본 의식에는 별도의 영산작법의식이 존치되지 않고 있다. 무주고혼을 위한 시식의식인 수륙재에는 재시(財施)와 함께 무외시(無畏施)와 법시(法施)의 삼단(三檀)보시를 비롯하여 육도(六度: 육바라밀)의 실천이 요청된다. 삼단보시의 구조와 인식은 몽산 덕이(德異)가 수주(修註)한 『증수선교시식의문』에 잘 나타나 있다.⁴⁶⁾ 그렇지만 산 자를 위한 생전의 예수재 의식에는 별도의 법시(法施)가 편제돼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법석 의식이 설행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석문의범』이나 『預修儀文』에 시간이

45) 『釋門儀範』 上卷, pp.118-119.

46) 『增修禪教施食儀文』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第1輯, p.363a.

축박할 때는 생략이 가하다고 양허하고 있지만 엄정의식이 끝난 다음 복청계와 참회계송을 한 다음 설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때의 강설 경전은 법화경인지 아닌지 여부를 별도로 밝혀놓지 않았다. 해서 이때의 설법을 영산법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법화경이 아니라면 이를 영산법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초 1420년 법석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기⁴⁷⁾ 이전 칠칠재에서의 법석은 칠칠재 기간 중에 분속시켜 5일간에 걸쳐 행해졌다. 가령 태조의 칠칠재에서 행해진 법석을 보면, 1재의 법석은 <참경법석>, 2재의 법석은 <진언법석>, 3재의 법석은 <참경법석>, 4재의 법석은 <화엄삼매참법석>, 5재의 법석은 <능엄법석> 6재의 법석은 <원각법석>, 7재의 법석은 <법화삼매참법석>이 설행되었다.⁴⁸⁾ 이후 법화경이나 법화참법으로 행해진 법화[영산]법석이 한국불교의 주요한 법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⁹⁾

그런데 엄정팔방 이후의 설법의식과 별개로 수록재의 법시와 유사한 의식으로 명부시왕과 권속에 대한 기성가지 공양 이후 금강경 독송을 행하고 있다.⁵⁰⁾ 예수재에서 독송하는 주 경전은 금강경으로 나타난다. <12생相續>에는 각 생이 갚아야 할 빛과 보아야 할 경전이 있는데, 이곳에서의 간경은 금강경이라고 할 수 있다. (경자생은 금강경을 35권 보아야 한다.) 실체는 금강경찬으로 대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금강경찬’은 대력 칠년(772)에 비산현령의 유 씨 여자가 죽어 염라왕을 만나고 다시 살아 돌아와 세상에 유포했다고 하고, 또 『시왕생칠경』 1권 <환혼기>에 도명화상이 778년에 환혼을 다녀왔다⁵¹⁾고 하는 것은 시왕예수신앙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이기

47) 『세종실록』 권8, 1420년 7월 10일조.

48) 『태종실록』 권15, 1408년 6월 9일조.

49) 이성운, 「영산재와 수록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pp.426-427.

50)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제2집, p.84上

51) 미치하타 료우슈우, 최재경 옮김, 『불교와 유교』 p.108.

때문이다. 이 두 사건은 생전예수신앙과 관련이 깊다. 그러므로 <12 생상속>에서 언급하는 금강경 간경은 금강경찬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으며, 금강경찬 염송은 예수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⁵²⁾

이렇듯이 예수재에 설법의 법석의식이 별도로 존치하지 않는 까닭에 엄정팔방의식을 행한 다음 도량과 대중의 참회를 한 다음 설법을 편입한 것은 견기이작의 대표적인 양태이며, 한국불교의 현실성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정해 놓았지만 정해 놓은 것에 매이지 않고 상황 따라 선행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열린 사고의 결정판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전통의 의례를 전승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대응하여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모습은 한국불교의 큰 특성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⁵³⁾

IV. 예수재의 상례화

사후의 칠칠재를 생전에 행하는 생전예수재는 자칫하면 중세 가톨릭교회의 면죄부 판매로 오인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 정신과 의식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업장의 소멸을 기원하는 종교의식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預修)라고 하고 있다. 마치 본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 모의고사를 보는 것처럼. 예수재의 중심은 시왕이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시왕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 시왕에

52) 이는 어산작법학교 학장 범안 스님의 견해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53) 필자는 이 같은 한국불교의식의 특성을 '상황논리'라고 하며 역동성의 반면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논의한 적이 있다. 이성운, 「한국불교의식의 특성: 상황논리의 역동과 한계」, 『大學院論文集』 제6집 (중앙승가대학교대학원, 2013), pp.243-284.

게 공양을 올려 미리 선업을 닦는 것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선업을 행하는 보시를 실천하는 데 초점이 주어져 있다. 시왕사가 건립된 기록으로 볼 때 시왕사상에 국내에 도입된 시기는 10세기 이후 11세기 무렵이라고 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사후의 칠칠재 봉행이 성행했다고 할 수 있다. 불교의 중음설과 시왕의 심판사상에 의거한 불교의 상제가 중국불교에서부터 백일재 소상 대상에까지 확대되어 봉행되고⁵⁴⁾ 국내에 도입되어 신앙되었지만 한국불교에 ‘예수재’라는 명칭이 성행한 것은 16세기 중엽이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 초반 해도 ‘시왕재’라고 하고 있지만 16세기 초반을 지나며 ‘소번재’라고 하여 시왕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반문』(1576)의 주 공양대상은 시왕이고, 『청문』(1529)에도 시왕을 찬탄하며 예경하며 공양하고 있다.⁵⁵⁾ 그렇다면 어떤 연유로 시왕재나 『제반문』 등의 차서에 따라 때때로 권공하면 충분하였을 터인데 생전예수재의문이 편찬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 이 글에서 완벽하게 밝혀낼 수는 없지만 어쩌면 영산작법이 영산재로 분화돼 정착되는 시기와 의미 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예수재 신앙의 일상성과 설행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삭망(朔望)의 기원

생전예수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佛說預修十王生七經』에는 초하루 보름의 재일에 시왕에 공양을 올리고, 죽기 직전에 삼칠일을 역수(逆修)하라고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윤달’에 설행한다는 설행 시기는 찾을 수 없다. 사후의 공덕을 미리 닦는 데 어느 해 어느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육도에로의 윤회를 벗어나

54) 미치하타 료우슈우, 최재경 옮김, 『불교와 유교』 (한국불교출판부, 1991), p.100.

55) 玄敏 寫, 『請文』 (동국대 도서관 고서번호 218.7저71책, 1529), pp.79-101.

고자 하는 불교도의 세계관에 의거하면 언제나 예수(預修)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불교도들이 이해하는 윤년 윤달의 예수재는 다른 사회적 민속적 요인에 의하여 토착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예수를 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예수재가 여타의 재회와 시기적으로 어떻게 다르며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수륙재는 정월 보름 또는 2월 보름, 시월상달에 주로 설행된다. 기신재나 칠칠재는 당연히 당해 영가의 기일이나 사후에 행해진다. 무주고혼을 위해 베풀어지는 수륙재 등은 한 해의 특정 시기에 행하므로 그 날짜가 정해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예수재는 평소에 늘 행해야 하는 선업이므로 시기가 따로 정해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선업을 행할 날과 행하지 않을 날이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인도의 재일처럼 사천왕이 염부제의 중생들이 선업을 닦는지를 살피는 8일 14일 15일에 재계를 지니고 승중(僧衆)에 공양을 올렸다고 보인다. 이 같은 재일사상으로 보면 『佛說預修十王生七經』의 초하루 보름은 흑월과 백월에 한 번씩 공양을 올린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하는 날의 기본원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불교에서 초하루 보름에 올리는 불공도 이 사상에 의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적지 않게 변했지만 많은 사찰에서 정초나 월초에는 신중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⁵⁶⁾ 신중기도를 올리는 연유야 신장님의 가호를 청하기 위해서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왜 하필이면 정초이고 월초일까. 이 점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연월은 한 해와 한 달의 시작이며 서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의례로 비교하면 도입부이다. 의례를 원만히 성취하기 위해 신중의 가호를 청한다. 이때 의례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하는 의례만이 아니라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출가 재가를 막론

56) 정초나 월초에 신중기도를 올리는 신행이 변화를 보여주는 한 예로 『통일법요집』 p.206에서 “매월 음력 초하루는 정광불(연등불) 재일이나 일반적으로 신중기도를 한다.”는 간주가 의미 있다고 보인다.

하고 제일의 수행의례라고 할 때 행자의 나날은 수행의례이므로 가호를 청해야 한다. 신중에는 예적원만성자와 10대명왕 등 39위 또는 104위의 다양한 차원의 호법신중이 있다. 한 해와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분들을 먼저 청해 공양 올리고 가호를 청하는 것이다. 명부 시왕과 그 권속은 바로 불법과 행자를 가호하는 수호신이다. 대웅전의 좌측에 관음보살 우측에 지장전(명부전)이 존재하는 것은⁵⁷⁾ 시왕의 역할이 명계에서 양계로까지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삭망(朔望)에 동업대중이 재계하고 함께 불전에 공양 올리고 중위의 신중께 권공하며 현생수복과 내생에 정찰(淨刹)에 왕생을 발원하는 이 의식은 바로 예수의식의 가장 기본적인 양태라고 할 수 있다. 명부 시왕과 권속에게 공양을 올리고 금강경을 독송하고 화청을 하는데 이 화청의 축원문이 바로 현증복수(現增福壽) 당생정찰(當生淨刹)이다.⁵⁸⁾ 이 의식을 화청(和請)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장에 참여한 재자들에게 들려주는 노래인 ‘회심곡’과 같다고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화청은 예수재나 『권공제반문』 등에서 확인되듯이 범주가 일체 성현을 두루 청한 다음, 모인보체나 모인영가라고 선창하면 대중이 ‘현증복수(現增福壽) 당생정찰(當生淨刹)’ 또는 ‘속리고해(速離苦海) 생어정토(生於淨土)’⁵⁹⁾라고 화답하는 것이라고 하겠다.⁶⁰⁾ 이렇듯이 생전예수재는 다분히 일상적이다. 일상성을 안고 있게 되므로 초하루 보름에 『청문』이나 『제반문』에 의지하여 일상적으로 행하므로 이의 역사적 실행에 관한 언급이 의외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인다.

57) 불전의 좌우에 가람전과 조사당을 건립하는 것은 법의 전승과 호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中國佛教協會編, 中國佛教儀軌制度, 『中國佛教』2, p.332.

58)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제2집, p.84上.

59) 「勸供諸般文」,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제1집 (1576), p.658下.

60) 노명렬, 「불교, 화청의식 복원에 관한 연구」 (북랩, 2013), p.29.

2. 齋日의 獻供

초하루 보름은 십재일 가운데 정광재일과 아미타재일로 알려져 있다. 재일신앙이 발달하였으므로 초하루에도 아미타재일처럼 정광여래에게 공양을 올려야 할 터인데, 정광재일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 물론 인등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것은 정광재일의 의미를 잘 잊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는 있다. 정광불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하신 부처님으로 광명을 정해주신 불이므로 불교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미 있는 설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듯이 시왕과 십재일신앙은 그 궤를 같이한다. 이미 고려시대에 십재와 십재일을 지녔다는 기록이 전하듯이⁶¹⁾ 재일신앙은 시왕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일의 명칭인 모모재일의 모모불보살은 시왕의 주불이며 원불로 시왕의 증명불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십재일에 공양을 올리는 대상은 증명의 주불이라고 아니라 시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재일의 원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시왕권공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일용작법』은 조선 초기에 편찬되었다고 하지만⁶²⁾ 그 원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본은 1869년 간행 해인사 도솔암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십재일과 원불과 시왕은 다음과 같이 배대되어 있다.⁶³⁾

61) 이능화 편, 『寺門行香親率百官』, 『朝鮮佛教通史』 下卷, p.432.

62) 1496년 경상도 옥천사 간행. 南希叔, 『朝鮮後期 佛書刊行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2004), p.91.

63) 『日用作法』,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제3집, p.552.

1일	정광재일	진광대왕	庚午 辛未 壬申 癸酉 甲戌 乙亥
8일	약사재일	초강대왕	戊子 己丑 庚寅 辛卯 壬辰 癸巳
14일	천불재일	송제대왕	壬午 癸未 甲申 乙酉 丙戌 丁亥
15일	미타재일	오관대왕	甲子 乙丑 丙寅 丁卯 戊辰 己巳
18일	지장재일	염라대왕	庚子 辛丑 壬寅 癸卯 甲辰 乙巳
23일	세지재일	변성대왕	丙子 丁丑 戊寅 己卯 庚辰 辛巳
24일	관음재일	태산대왕	甲午 乙未 丙申 丁酉 戊戌 己亥
28일	사나재일	평등대왕	丙午 丁未 戊申 己酉 庚戌 辛亥
29일	약왕재일	도시대왕	壬子 癸丑 甲寅 乙卯 丙辰 丁巳
30일	석가재일	전륜대왕	戊午 己未 庚申 辛酉 壬戌 癸亥

<표 1> 십재일 주불과 시왕 및 육갑

현재 한국불교에서는 각 재일의 이름도 관음재일 지장재일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재일이 각 시왕의 재일이라는 것도 잘 인지되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십재일사상과 신앙은 조선후기 한국불교를 설명하는 데 의미 있는 신행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성행한 사찰갑계는 육갑을 십재일로 배대한 데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동갑’이라고 할 때 같은 나이를 지칭한다고 이해하지만 육갑의 갑이라는 의미가 적합할 것이다. 특히 같은 또래들이 집단화하여 같은 원불과 시왕을 신앙하였던 것이다. 그 가운데 염불계는 역불의 조선조에서 불교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신앙적 기반을 제공하기도⁶⁴⁾ 하였다. 후일 사찰갑계는 동갑이나 승려뿐만 속인들도 참여하면서 그 본래적 양태는 변화되었다고 보인다. 이렇듯이 육갑은 십재일을 기반으로 신앙하고 결사하는 것이지만 동갑의 계원이 확대되듯이 그 의미도 확대되고 퇴색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양태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시왕사상에 입각한 시

64) 한상길, 『조선후기 불교와 寺刹契』 (경인문화사, 2006), p.7.

왕공양을 통한 십재일의 예수 의미가 점차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되었다고 보인다.

3. 수륙재와 同行

예수재의 상례화에 기여하는 또 하나는 수륙재회와의 동시 설행이라고 보인다. 무주고혼을 위한 수륙재와 산 자의 왕생을 위한 예수재가 단독으로 설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동참으로 이뤄진다. 해서 수륙재를 할 때 생전의 예수재도 함께 설행하였다고 보인다. 17세기 중엽에 간행된 『오종범음집』(1661)이나 18세초 간행된 『범음집』⁶⁵⁾을 단순한 종합의례집이라고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따는데, 여기서 ‘오종’이란 영산작법·중례작법·결수작법·예수문·지반문을 말한다.⁶⁶⁾ 이는 단순히 의례를 모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례의 대소이거나 망자와 산 자를 위한 의식이다. 또 『범음집』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륙재의 일차별 차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범음산보집』 <십권자기문삼주야작법규>에 의하면 두 번째 날 오전에 영산작법을 행하고 한 편에서는 예참작법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는 예수작법을 의문대로 하고 시식을 하라고 하고 있다.⁶⁷⁾ 또 <칠주야수륙재>에는 6일째 오후에 시왕단을 청해 공양을 올리고 있다.⁶⁸⁾ 이 같은 예수재의식의 흔적은 현행 수륙재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산재의 조전의식(造錢儀式)이나⁶⁹⁾ 동해 삼화사 수륙재의 고사단(庫司壇) 설치가 그것이다.⁷⁰⁾ 경전과 명부전을 입고할 고(庫)를 관할

65) 『범음집』은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을 지칭하는데 서문 상 곡성도립사 판은 1707년, 중흥사판은 1723년에, 묘현사 보현사판은 1713년에 필사되었거나 간행되었거나 할 수 있다.

66) 『五種梵音集』, 『韓國佛教全書』 제11집, p.157上.

67) 「十卷仔夔文三晝夜作法規」, 『梵音刪補集』, 『韓國佛教全書』 11, p.522中.

68) 「七晝夜之式」, 『梵音刪補集』, 『韓國佛教全書』 11, p.521上.

69) 심상현 글, 『영산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pp.186-192.

하는 고사단을 설치하는 것은 수록재에 예수재가 함께 설행된 흔적이 남겨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서울 진관사 수록재 중단에 12지신의 번이 걸리고 있는데, 이 또한 12상속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또 상단이든 중단이든 공양을 올리고 나면 언제나 재자의 축원과 더불어 선망조상과 범계일체영가를 위한 축원을 하는 것이 한국불교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무주고혼을 위해 설판한 이들을 위해 현생의 복덕과 수명이 늘고 내생에는 정토에 나기를 발원하면서 사후와 생전, 그리고 대타와 자행이라는 ‘유위(有爲)’의 일체경계는 무화되고 만다. 이는 분명히 긍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일편 생전예수재 설행의 감소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를 위해 어느 때부터 윤달이라는 공달을 통해 생전예수재를 설행하게 되었을 것이다.

현재 전해진 수록재 의문에 비해 예수재 의문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숫자가 미미하다. 19세기 간행된 『작법귀감』(1826)에는 예수재 의식에 해당하는 의식으로 약례왕공(略禮王供)으로 일반화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설행의 희소성보다 예수재의식의 상례화에 말미암아서라고 할 수 있다.

4. 설행의 상황

초하루 보름의 기도와 불공, 재일의 헌공 등은 다 예수(預修)의식이지만 현재 지장재일은 명부신왕과 결합되어 망자를 위한 의식으로 특징되고 있고, 관음재일은 산 자를 위한 발원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삭망의 기도나 재일의 공양, 수록재와의 동시설행과 같은 예수 설행의 상례화는 생전예수재의 필요성을 그만큼 감소하게 하였겠지만 명부의 지전(紙錢)을 준비하고 경전을 읽고 바치는 가시

70) <삼화사 국행수록대재 준비 자료집> p.20.

적이고 복합적인 종교의례로서의 독특한 기능은 상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생전예수재는 어떻게 설행되고 있는가. 『佛說預修十王生七經』에는 생칠이라고 하여 생전의 칠칠재를 언급하고,⁷¹⁾ 『佛說灌頂隨願往生十方淨土經』에는 임종 직전의 삼칠일(21일) 동안을 역수(逆修)하라고 하고 있다.⁷²⁾ 현재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예수재를 할 때 경계에 제시된 칠칠일·삼칠일 가운데 49일재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회향하는 날에 본 예수재를 설행하고 있다고 보인다. 설행 시각을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석문의범』에만 해도 ‘이 밤에 [是夜] 대 단월이’라고 하여 밤으로만 표기하고 있지만,⁷³⁾ 『예수의문』에는 ‘일야(日夜)’를 소자로 협주하고⁷⁴⁾ 있는 것으로 볼 때 낮이나 밤에 설행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현재는 대체로 오전 사시 전에 시작하여 오후에 마치고 있다고 보인다.

생전예수재가 윤달에 봉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달’이라는 윤달 사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후의 칠칠재야 별 문제가 없지만 생전의 칠칠재는 언제 봉행하느냐가 중요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죽기 전의 삼칠일 칠칠일 전에 예수재를 해야 하겠지만 현재 이와 같이 예수재를 닦는 데는 적지 않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언제부터 윤달에 생전예수재를 봉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儀文)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주로 윤달에 예수재를 행하고 있지만 ‘생전예수’라는 본래 의미와 사찰의 실행 형편에 따라 수시로 설행되고 있다고 보인다.⁷⁵⁾ 또 선망조상을 추천하는 백중의 우란분재는 자자를 마친 청정승가에 올리는 재이므로 이는 당일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71) 藏川 述, 『佛說預修十王生七經』(卍新纂續藏經 第一冊 No. 21), p.408b.

72) 『佛說灌頂隨願往生十方淨土經』(大正藏 21), p.530.

73) 『釋門儀範』 上卷, p.156.

74) 『預修儀文』 p.14前.

75) 2015년 5월 2일 충북 단양 소재 대한불교천태종 구인사에서는 생전예수재를 설행하고 있다.

데, 현재 조계사를 비롯하여 도하의 사암에서 칠칠재로 봉행하고 있는 것은 생전칠칠예수재의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후의 칠칠재는 신흠(新故魂魄) 영위를 위해 설해지는 것이므로, 칠칠재로 봉행되는 우란분재는 선망조상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후 칠칠일 동안 행해지는 추천재의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19세기 이전의 『범음집』에는 수록재의 일편에서 예수재를 하였다고 보이지만, 19세기 불교의례를 싣고 있는 『작법귀감』(1826)에는 예수재라는 항목조차 보이지 않고 약례왕공 의식만 보인다. 하지만 20세기 『석문의범』에는 예수재가 상주권공 영산재 수록재와 더불어 재공의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의례 실행 현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V. 결어

사후에 올리는 칠칠재를 대신해 살아생전에 본인이 직접 시왕에게 공양 올리고 전생의 빚을 갚으며 경전을 보는 생전예수재는, 자칫하면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의 상징적 의미를 바로 알고 실천하면 더없이 의미 있는 보시행의 실천이 되며, 경건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 생전예수재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면 생전의 장례식 체험처럼⁷⁶⁾ 더없는 ‘웰다잉’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6) 2014. 4. 6일 전북 내소사에서 해안 스님 40주기 다례제가 끝난 후 동명 스님이 장례 가마를 타고 체험을 하였다. 스님은 “지금 비록 은사스님은 가시고 없으시지만, 53년 전 스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여러 스님들과 함께 걸으며, 삶이란 이런 것이 구나를 느끼게 됐다”면서 “해안스님께서 는 장사하는 사람이든, 농사짓는 사람이든, 스님이든, 누구라도 1주일만 수행 정진하면 도(道)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고 소회를 밝혔다. <불교신문> 2014.4.7.

이 글은 한국불교 생전예수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예수재의문 회편의 특성과 차서의 재구조화, 예수재의 상례화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다른 내용을 요약하고 글을 마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10세기경부터 시왕사상에 입각한 사후의 칠칠재나 명부의 시왕에 권공하여 명복을 비는 신앙이 발달하였다고 보인다. 현재 한국불교 예수재의문의 고행은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로 생물을 알 수 없는 대우 스님에 의해 16세기 중반에 집술(集述)되었다. 자료를 모으고 저술하여 ‘찬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수록재 ‘찬요’의 편집 전통을 일정 따르고 있다. 같은 방식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같은 문장의 요소를 택하거나 편집에 유사한 방식을 전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가장 전통적인 수록재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활요의 편제도 일정 부분 도입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의례의문의 간행정신을 잇고 있음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예수재에는 한국적 정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듭 거듭하는 공양 올리는 중층적 구조를 보여주고도 있다.

예수재는 집술 이후 역사를 거듭하면서 의례의 차서가 점차 재구조화되고 있다. 예수재에는 신중의 옹호를 발원하는 모습이 희박한데, 창불을 행하여 의식 도량의 옹호를 발원하고 있다. 그동안 창불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창불은 적어도 전(全)의식의 서두에 행해지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 예수재 본 의식에서 엄정팔방 의식을 보완하기 위해, 관음청을 하여 결수(乞水)하고 쇄수(灑水)하는 의식 등을 추가로 행함으로써 의례를 재구조화하고 있다. 또 엄정(嚴淨)한 도량에 영산의 설법의식을 행하고 결계와 건단을 행하고 있다. 이는 예수재에도 대령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영산재와 수록재 등에서는 법화경이 염송되거나 설법되었지만 예수재에서는 저승빛과 함께 바치는 간경은 금강경이 염송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금

강경찬으로 대체되었다고 보인다.

시왕재나 소변재로 불리다가 16세기 중반 예수재라고 명칭 되며 발달하였다고 보이는 생전예수재는 점차 상례화의 길을 걷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초하루 보름의 불공이나 십재일의 헌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봄가을의 수륙재 등에 예수재가 합설되면서 고유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보인다. 특히 십재일 신앙의 핵심은 시왕권공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主)불보살에게 올리는 공양으로 인식되어 명부시왕과 관련된 재일은 지장재일에 한정될 정도로 이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생전예수재가 일상예수(日常預修)라는 의미로 축소되었지만 예수재에서 행해지는 독특한 종합의례로서의 성격까지 감소되지는 않았다. 20세기 들어 영산재 수륙재 등과 함께 종합의례들이 재정리되고 신행되면서 예수재도 그 본래적 기능을 되찾게 된다. 생전예수재는 윤달에 주로 행해지고 있다고 보이지만 그 의미는 늘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현재 도하 사찰에서 우란분재를 칠칠재로 봉행하는 모습은 생전예수재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므로 생전예수재는 향후 전통을 유지하면서 현실의 수요를 수용하여, 종교와 이념을 떠나 사회에 선행을 베푸는 종합문화로 새롭게 변화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난에 의해 시작된 수륙재는 전문출가자들에 의한 무주고혼의 구제가 중심인 데 비해 빈비사라왕의 시왕권공에서 연유하는 예수재는 재가자들의 자발적 공양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재에서 시왕에게 올리는 공양은 일차 승단에 귀속되고 이차 사회에 환원된다. 그러므로 10세기 이래 성행하고 16세기에 현재의 이름으로 행해진 생전예수재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한국불교의 가장 의미 있는 전통문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太祖實錄』, 『世宗實錄』, 『中宗實錄』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6.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三聖庵, 1993.
 『韓國佛教全書』, 동국대학교출판부, 1993.
 『佛說灌頂隨願往生十方淨土經』, 大正藏 21
 『佛說預修十王生七經』, 卍新纂續藏經 第一冊, No. 21
 『地藏菩薩本願經』, 大正藏 13
 宗鑑 集, 『釋門正統』 第四, X75n, 1513.
 『陽村集』 33卷, 「釋王寺堂主毘盧遮那左右補處文殊普賢腹藏發願文」條
 『水陸儀軌會本』, 上海佛學書局
 『勸供諸般文』,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第1輯, 1576.
 「懶庵雜著」, 『韓國佛教全書』 第7冊
 『梵音刪補集』, 『韓國佛教全書』 第11冊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지반문』,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第1輯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第2輯
 『五種梵音集』, 『韓國佛教全書』 第11冊
 『日用作法』,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第3輯
 『增修禪教施食儀文』,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第1輯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중례문』,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第2輯.
 玄敏 寫, 『請文』, 동국대 도서관, 고서번호 218.7저71ㄷ, 1529.
 이능화 편, 「寺門行香親率百官」, 『朝鮮佛教通史』 下卷
 노명렬, 「불교, 화청의식 복원에 관한 연구」, 북림, 2013.
 彌燈, 『국행수륙대재』, 조계종출판사, 2010.
 安震湖 編, 『釋門儀範』, 卍商會, 1935.
 姜在默 謹書, 『預修儀文』, 全北佛教聯合會, 1988.
 鎌田茂雄 著, 『中國の佛教儀禮』,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86.
 中國佛教協會編, 「中國佛教儀軌制度」, 『中國佛教』 2, 上海: 知識出版社,
 1982/1989.
 심상현 글, 『영산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 『통일법요집』, 조계종, 2003.
- 한상길, 『조선후기 불교와 寺刹契』, 경인문화사, 2006.
- 南希叔, 『朝鮮後期 佛書刊行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노명렬(혜일), 『현행 생전예수재와 조선시대 생전예수재 비교 고찰』,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문상련(정각), 「지장신앙의 전개와 신앙의례」, 『정토학연구』 제15집, 한국정토학회, 2011.
- 미치하타 료우슈우, 최재경 옮김, 『불교와 유교』, 한국불교출판부, 1991.
- 이범수, 「불교의 예수재와 죽음 교육」, 『정토학연구』 제11집, 한국정토학회, 2011.
- 이성운,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韓國佛敎學』 第73輯, 한국불교학회, 2015.
- 이성운, 「한국불교의식의 특성: 상황논리의 역동과 한계」, 『大學院論文集』 제6집, 중앙승가대학교대학원, 2013.
- 이성운,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韓國禪學』 제36호, 韓國禪學會, 2013.
- 이소오카 테즈야, 水陸齋의 사회학적 의미, 『두타산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의 전통성과 그 구조적 의미』,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보존회·한국불교민속학회, 2012.
- 한태식(보광), 「생전예수재 신앙 연구」, 『정토학연구』 제22집, 한국정토학회, 2014.
- <불교신문> 2014.4.7.

Abstract

The characteristic of Saengjeonyesujae(生前預修齋) in Korean Buddhism

- focusing on the compilation, the procedure and the usual practice -

Lee, Seong-woon

(Affiliated professor at the Academy of Continuing Education at Dongguk Univ.)

This essay considers the characteristic of Saengjeonyesujae(生前預修齋, performing the rites during life in order to be reborn into Buddha's land after death) in Korean Buddhism, where one performs Chilchiljae(七七齋, weekly ritual for the deceased for seven weeks) in advance while in life, a kind of Chucheonjae after death(死後追薦齋, the ceremony of praying for the repose of one's soul). It is performed through offerings to the ten kings of hell, repaying the debt of the earlier life and by reading the Buddhist scriptures. Here we discuss Saengjeonyesujae focusing upon the trait of compilation of ritual program in Yesujae, the reconstitution of its procedure, and its usual practice.

In the 10th century the belief of praying for the repose of one's soul developed in Korean Buddhism, where people perform Chilchiljae after death or made offering to the ten kings in the nether world based on the thought of the ten kings of hell(十王思想). The earlier version of ritual program in Yesujae, *Yesusiwangsaengchiljaeuichanyo*(『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was compiled in the mid 16th century by Ven. Daewoo(大愚) unknown his birth and death date. He named his compilation as 'Chanyo'(纂要, the compilation of the gist), which follows the editing tradition for the compilation of the gist. It

succeeds the publication spirit of Korean Buddhist ritual program by adopting the organization of Chwalyo(撮要, the selection of the gist), another form of the traditional Suryukjae(水陸齋, the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and shows a multi-layered structure of offering.

The order of program in Yesujae has gradually been restructured since his compilation was published. There are a variety of different views on when the ceremony of chanting Buddha, the prayer for gods' protection should be performed, however I think it should be performed at the opening of the rite. Also, the rite is restructured by the addition of the ceremony of inviting Avalokiteśvara and involves the sprinkling of holy water to purifies the eight directions, and a dharma talk. The Lotus Sutra(Saddharma Puṇḍarīka Sūtra) is read or taught in Yeongsan · Suryukjae(靈山 · 水陸齋, Vulture Peak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while The Diamond Sutra (Vajracchedikā Prajñāpāramitā Sūtra) was read along with the repayment of afterlife debt in Yesujae before being replaced by *the compilation of the gist of The Diamond Sutra*(『金剛經纂』).

Saengjeonyesujae was originally called Siwangjae(十王齋, the rite for the ten kings of hell) or Sobeonjae(燒幡齋, the ceremony of burning the papers) which were further developed in the mid 16th century to become Yesujae. It has become a common practice such rituals as making an offering to Buddha on the first day of every month, and every full moon day and dedication on Sipjaeil(十齋日, Ten precept days). It lost its inherent meaning as it has become combined with Suryukjae. This was especially the case for sipjaeil, which became an offering to the Buddha and bodhisattvas instead of the ten kings of hell while the offering for the ten kings in the nether world became part of Jijangjaeil(地藏齋日, the celebration for Kṣitigarbha, a bodhisattva of Earth Treasury). Saengjeonyesujae was reduced to the usual practice of Yesujae. But its composite feature is preserved and it has regained its inherent functionality as the

composite rites including Yeongsanjae and Suryukjae after being reorganized in 20th century. Generally it is performed on leap months but may also often be performed at the temples in the capital when Chilchiljae is substitute for the Uranbunjae(the ceremony for dead ancestors).

Key words

Saengjeonyesujae(生前預修齋), Chucheonjae after death(死後追薦齋), the thought of the ten kings of hell(十王思想), Yesusiwangsangchiljaeuichanyo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Suryukjae(水陸齋, the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Sipjaeil(十齋日, Ten precept days).



논문투고일 : '15. 4. 29. 심사완료일 : '15. 6. 4. 게재확정일 : '15. 6. 4.